

■ 韓銀 기준금리 전격 인하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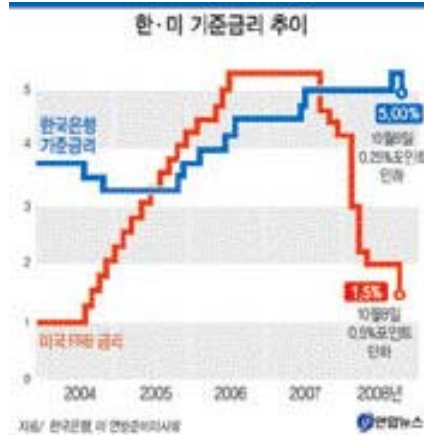
물가보다 경기 부양 더 급했다

한국은행이 9일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시장에 원화를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경기하강을 최대한 막고 기업·가계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을 거쳐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금융 경색과 실물 경제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자 경기 하강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시장에 원화 충분히 공급... 기업·가계 살리기 각국 금리인하 흐름 동참... 환율 안정이 관건

◇주요국 금리인하 흐름에 동참=한은이 금리를 내린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이 심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 성장률은 내년에 3%대로 떨어지는 등 올해보다 훨씬 나 빠질 것으로 예측 기관들은 전망하고 있다. 경기하강은 금융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이는 외환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보도자료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은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잠재력 아래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몇 분기 나타날 수 있다"고 경기상황을 우려했다.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9월 소비자물가가 상승률이 5.1%로 안정된 것도 금리인하에 기여했다. 한은은 그동안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두바이유가 배럴당 74.56달러로 떨어지는 등 국제유가가 매우 빠른 속도로 안정되자 한은은 물가부담을 덜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가 10월에는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번 금리인하의 요인으로 꼽힌다. ◇물가보다 경기가 급하다=전문가들은 글로벌 유동성 완화에 공조한다는 차원에서 금리인하는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단은 미국과 유럽의 금리결정과 환율움직임이 관건이었는데, 주요국들이 금리를 일제히 내린 만큼 향후 한은이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배만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화유동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금리를 내려 원화를 더 푼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금리카드를 아낄 필요가 있지만 글로벌 차원의 금리인하 기조를 감안한다면 한은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공행진"을 하는 물가, 환율의 지속적인 불안 등은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은 시장의 안정

이 중요하지만 결국은 물가나 경기나 문제"라며 "물가가 소폭 안정된다 하더라도 3%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금리를 내리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적절성 논란=현 단계에서 정부나 중앙은행의 최대 과제는 달러 유동성 위기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달러 유동성 위기가 지속된다면 이는 외환위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해결방안은 달러 유입을 촉진시키고 유출을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금리인하는 이런 해결방안에 역행한다는 것이 종전의 한은 판단이었다. 금리인하가 채권시장에서 달러 유출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통위는 예상과 달리,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전날 세계 각국들이 금리인하에 나선 것이 금통위팀들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국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올 만큼 외화유동성 사정은 심각한 상황이다. 선진국의 경우 외화유동성 문제가 한 국만큼 심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의 금리인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또 내년 이후에 경기가 더욱 빠르게 하강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리인하 카드는 좀더 아껴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비용 부담 감소 기대 재계 "긍정적 조치" 환영 증시·환율엔 장기적 호재로 작용 안돼

■ 韓銀 금리인하 영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가 건설업을 비롯 산업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보이지만 증시에 장기적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환율에도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신금리를 인하하지 않기로 했다. 9일 산업계는 기업들이 원화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기가 빠른 하강을 막기 위해 내리진 금통위의 결정이 시장심리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인하폭이 크지 않아 실질경제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책당국이 대출금 만기연장시 적용되는 금리를 내려주는 등 다각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 금융비용 부담이 덜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재계는 한은의 금리인하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정책당국이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보인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는 금리인하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아파트 계약자들의 중도금 대출 이자부담이 줄어들면서 주택 구매세가 회복되고, 건설사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비용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증시 전문가들은 하지만 금리 인하가 단기간 상승을 이끌어내고는 있지만 장기 호재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도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 "지금 외환시장에서 금리인하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 우리은행과 외환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수신금리를 동반 인하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전기·가스 요금 인상시기 늦춘다

지식경제부가 이달 중순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하려는 계획을 수정해 인상시기를 연기했다. 지경부는 9일 "전기와 가스요금은 경제상황과 유가 등을 좀 더 지켜본 뒤 조정하기 위해 조정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당초 이날 전기 위헌회를 열어 전기요금 인상요율을 결정하고 가스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10일

공식 발표기로 했지만 환율이 폭등하고 국제유가가 1년 전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전기요금에 주택용과 자영업, 중소기업, 농업 등 4개 용도에 대해서는 연내 요금을 동결하되 나머지 요금은 인상할 계획이었으며 가스요금도 연내 2차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연합뉴스



환율 급등의 여파로 금값이 폭등하고 있다. 순금 24K 도매가격(이하 3.75g 기준)은 지난 4일 13만8천원선인데 7일 15만3천원선으로 훌쩍 뛰었으며 8일 15만9천원으로 올랐다. 9일 순금 한돈 소매가가 18만9천원까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귀금속상에서 손님이 귀금속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다시 로또 하자

금융위기 탓 구매 급증

금융위기로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9일 나눔로또에 따르면 지난달 추첨이 이루어진 제 301회부터 제 305회까지 로또 판매액은 회차당 평균 441억4천417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425억4천225만원에 비해 16억

원(3.8%) 증가했다. 추석 이후인 제 303회차가 428억 4천176만원, 제 304회차가 431억5천865만원, 제 305회차가 439억6천66만원으로 지난 3주간 꾸준히 늘었다. 나눔로또 관계자는 "로또 판매액은 2003년 정점을 찍은 이래 매년 10% 이상 줄어들고 있고 올해도 상반기에는 눈에 띄게 빠졌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추세"라며 "연간으로는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중 양주 10명 중 1명 가짜"

4년간 3만명 가량 적발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양주가 정상 양주 유통량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에 치명적 해를 가하는 행위이므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케이와이무역	물류배송 기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1	02-521-4046
재일산업(주)	[여성]석유화학 안전/영업관리/연구소/생산관리/공무/총무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2	061-690-9222
지비니 주식회사	컴퓨터조립 및 소품류 운영 정규직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0/13	062-350-6556
(주)HRN	[광주]SK텔레콤 기지국 유지보수 및 관리담당 남직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0/13	062-529-2671
화인피앤씨(주)	생산직 실근인쇄 경험자	고졸/경력1년	2000~2200	10/13	062-951-3751
K.T.C	SK텔레콤 상담원 및 관리직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4	062-716-0142
(주)동천미디어	구성작가, 광고카피라이터, 광고영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4	062-224-5401
(주)티티건설	공무 및 건축(카드) 경력직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10/14	062-971-7804
경기합동경동맥(주)	정규직 전산업무 담당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6	061-399-2402
(주)히나에드컴	광고 디자이너 신입/경력 직원	고졸/경력1년	2000~2200	10/16	062-974-0041
(주)참디자인	웹디자인 및 웹프로그래머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7	062-952-7906
(주)백제	문서관리 및 출납 회계업무 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0/18	062-604-1336
심포니에너지(주)	수출입무역 / 사업기획 및 경영전략 / 자동화설비관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8	062-949-7724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억대 연봉' 8만4천명

억대 연봉(세전)을 받는 '슈퍼 부급쟁이'가 국내에 8만4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제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길부(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총소득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2006년 기준으로 모두 8만4천명으로, 전체 근로세 해당 인원(66만2천1천명)의 1.27%였다. 이 수치는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므로 실제 연봉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금액이 8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가 9만6천명이고 이를 가운데는 실제 소득 1억원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근로소득금액 3억원을 넘는 사람은 6천명이었고 5억원을 넘는 사람은 2천명이나 됐다. 그러나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이 적용되는 과표 8천만원 이상자는 이보다 작았다. 국제청이 기획재정부 이광재(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표가 8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2006년 기준 6만9천명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유류·캔맥주세 낮춘다

대부업체·병원 불공정 약관도 '손질'

공정위 업무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류와 캔맥주 등에 붙는 세금을 낮추고 종합비타민제를 약국 이외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 대부업체와 병원의 불공정한 약관을 가려 메스를 가할 계획이며 금융상품의 부당 광고는 금융당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와 국정감사 자료에서 해외보다 비싼 품목들의 판매 경쟁을 촉진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외국에 비해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유류와 골프장 그린피 등의 세계 합리화와 실장 완제품에 대한 할당관세 완화를 관련 부처에 요구했다. 종합비타민제의 약국 외 판매 허용, 일반 의약품과 수입화장품의 병행수입 활성화, 수입 개방 확대를 통한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경쟁 촉진, 밀가루 수입선의 다변화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수입자동차를 파는 딜러들의 공동행위와 골프장 시장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연내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재판매가격 유지는 수입 또는 제조업체가 유통업자에게 일정한 가격 아래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50개 대형 대부업체가 약관에 임의의 이자율을 변경하거나 담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규정이 있는지, 표준약관과 다른 별도의 계약서나 특약서를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SK telecom 같은학교, 학생끼리
통화로 50%할인
학교끼리 T타입 할인제도